
第127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2002年월드컵蹴球大會支援
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1年5月29日(火) 午前10時
場所 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월드컵推進團및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所管業務報告

審査된案件

1. 월드컵推進團및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所管業務報告 ... 1面

(10時 25分 開議)

○委員長 朱世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기 제2차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林載五 文化觀光局長과 全希相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지구촌 스포츠의 대 축제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모든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성공적 대회를 치루어 내어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더욱더 드높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월드컵 주요경기가 치러지는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을 각종 첨단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모든 경기를 차질 없이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문화, 교통, 관광, 숙박 등 월드컵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문화관광국장과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으로부터 월드컵추진단 및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추진에 대한 주요현안보고와 질의답변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월드컵推進團및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所管業務報告

(10時 27分)

○委員長 朱世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월드컵추진단 및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먼저 林載五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林載五; 존경하는 朱世晩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文化觀光局長 林載五입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서울월드컵 문화행사와 월드컵추진과 관련한 국내외 협력사업의 추진, 그리고 서울 관광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일, 월드컵 숙박대책 등에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월드컵은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는 월드컵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발굴·보완하고 또한 월드컵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1개월여에 걸쳐서 월드컵 1년전 총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총연습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다듬어서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월드컵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월드컵추진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월드컵推進團長 權寧奎, 觀光課長 安承逸, 文化월드컵企劃擔當官 金炘 鎬, 월드컵推進班長 曹圭元)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월드컵추진을 총괄책임지고 있는 월드컵추진단장으로 하여금 월드컵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推進團長 權寧奎; 월드컵推進團長 權寧奎입니다.

오늘 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월드컵축구대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

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한 유인물 2002월드컵축구대회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報告)

문화관광국 2001년도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

이상 간략하게 월드컵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은 이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라거나 최선의 계획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또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차질 없는 준비,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준비를 하면서 월드컵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朱世晩; 權寧奎 월드컵推進團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全希相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존경하는 朱世晩 委員長님, 그리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월드컵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금번 위원회에서 월드컵주

경기장건설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시설과 대회 후에도 활용성이 높은 시민편익시설을 갖춘 미래형 복합시설로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막식을 비롯해 예선전, 준결승전 등 3게임이 열리게 될 아시아 최대 축구전용 구장입니다.

국내외 많은 관심 속에 98년 10월 착공된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오늘 현재 전체 공정률 87%를 상회하는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조정을 거쳐서 12월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붕막 설치가 다 끝났고 주경기장 그라운드 잔디 식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람석 의자가 설치가 되고 있고 주변의 수목 식재, 다음에 기계, 전기, 통신설비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공사가 착수된 이래 벌써 2년 7개월이 경과한 지금 아시아 최대의 축구전용 경기장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단 전직원은 전세계인의 꿈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대비해서 월드컵주경기장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

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 建築擔當官 金孝秀, 設備擔當官 鄭輔喜)

그러면 저희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의 주요업무를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

(報告)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朱世晩; 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따라 추진단장과 건설단장은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朴謙洙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謙洙 委員;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나 모든 국민이 월드컵에 대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드러나게 지금 추진된 사업 중에 자동차 홀짝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참여할지 상당히 궁금하고 월드컵 성공여부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혹시 바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월드컵推進團長 權寧奎; 각종 방송, 신문, 홍보물, 반상회 자료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의 홀짝제는 교통대책이라기보다는 오존대책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런데 시민들이 느낄 때는 교통대책으로 느끼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부터 실시하잖아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실시를 하고, 그리고 10월에 다시 실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계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께서 직접 중요시간에 출연을 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월드컵을 준비를 하는데 오존대책 플러스 교통대책 일환으로 홀짝제를 합니다, 하는 광고방송을 하는 것이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생각되는데 특히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바로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공영방송이랄지 상업방송, TV방송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트라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회의가 끝나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드컵推進團長 權寧奎; 우선 朴謙洙委員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약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님의 TV출연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른 문제 때문에 제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 5월 30일이기 때문에 각 방송국에서 특집 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도 시장님이 경기장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朱世晩; 李健相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李健相 委員; 李健相입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에 있어서 준비관계상 늘 마음 속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단장이나 또는 건설단장 두 분의 설명을 듣고 이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고, 요컨대 이 업무보고와 같이 내용을 충실하게 차질이 없도록 이행해 줄 것을 우리 공무원 간부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단장 10쪽에 4항을 볼 것 같으면 직능단체별 월드컵 손님맞이 실천운동, 여기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중에서도 교통, 관광, 숙박, 음식점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국민성이 이것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미리미리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온 시민이 습관이 되게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또 건설단장, 제가 이삼일 전에 헬리콥터를 타고 경기장을 두어 바퀴 돌아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허전해 보입니다. 경기장 부근이 쓸쓸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건설단장 보고 8쪽에 녹화문제, 조경문제를 들어 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현황보고와 같이 차질 없게 좀 경기장 부근을 멋지게 한번 조정 녹화사업에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준비단장이나 건설단장 두 분께서 업무 보고대로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또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朱世晩; 李健相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컵推進團長 權寧奎; 李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업무보고에 쓰인 것처럼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월 30일이라는 것도 큰 계기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도 5월 30일을 기해서 새로운 각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능단체 분야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李健相 委員; 차질 없게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朱世晩; 白懿宗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白懿宗 委員; 白懿宗委員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시고, 또 이런 자리에서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0쪽에 보면 경기장 조명등, 방송통신설비 등 비상전원 공급 30분, 그랬는데 정전이 되었을 때 30분밖에 비상전원 공급을 못 하나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그게 아니고요.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전원이 바로 연결되는 시설이 UPS라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축전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30분간 유지를 하고, 아주 중요한 전원은 그것으로 확보를 하고 그 사이에 발전기가 가동이 됩니다. 발전기가 가동이 되어서 그 전원을 이어받아서 발전기로 보완하도록 이중, 삼중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白懿宗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보조분수 펌프모터 제작 완료, 주분수 펌프모터 제작 중 그랬는데 아까 단장께서 보고하실 때, 어느 나라 제품을.....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보조분수 펌프는 저희 국산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주분수도 펌프만큼은 국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노즐입니다.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분수 토출구인데 그것은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위스에 유체기계연구소라고 연방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설계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白懿宗 委員;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총예산은 77억 8,000만원입니다.

○白懿宗 委員; 다음은 14쪽에 마포농산물시장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합니다.

제 출신이 마포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낡은 농수산물시장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5월 중 외부환경 정비공사 및 내부환경정비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낡은 집에 페인트 칠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뜯어 고치는 것인지, 우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14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10억을 지원했고, 그것이 원래는 여러 가지 철거라든지 보수방법에 대해서 그 동안에 토의가 있었습니다.

○白懿宗 委員; 이것이 마포에서도 상당히 골칫거리인데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그런데 저희들로서도 그 시설 자체가 기본적으로 철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대회기간 중에 모습이 흉하기 때문에 출입구라든지 일부 창호 같은 것은 교체하고 보안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도색하고 주변의 식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미관정비에 중점을 두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14억 5,000원을 투자해서 그냥 잘못된 얼굴에 화장하듯이 이렇게 세수하면 그 화장기 없어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만을 위해서 14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그 기간만은 아니고요. 그것 하면서 내부시설도 일부 보완이 되고 아까 보고드렸다고 피 내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체 금액이 14억원 정도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도색만 14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白懿宗 委員;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만, 14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혈세가 정말 낭비되지 않고 경기가 끝난 후라도 과연 값어치 있는 공사를 했다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15쪽입니다. 2001년 4월 27일 경기장 운영관리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했을 때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아까도 보고드렸습시다만, 경기장이 복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하고 수익시설, 그 데크 아래에 상업할인매장, 영화관,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이 있는데 경기장을 경영하는 데 위탁이 좋겠느냐, 직영이 좋겠느냐, 위탁을 한다면 누구한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또 시민편익시설 수익시설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임대를 준다면 전체를 묶어서 줄 것이냐, 나누어서 줄 것이냐, 또 어떤 조건을 붙여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토의한 것입니다.

○白懿宗 委員;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지금 아직 저희들이 이 안이 성안이 되지를 알았습니다.

○白懿宗 委員; 자문회의를 개최하셨죠?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네.

○白懿宗 委員; 거기에서 주로 나온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도 없습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白懿宗 委員; 아니, 그래도 한 두서너 가지 정도 크게 얘기할 수 없다 이건가요?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5월 7일에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관리계획 시장보고회를 하셨는데 뭘 보고회를 어떻게 하셨나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자문회의결과를 또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다시 또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白懿宗 委員; 그러니까 자문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시장님한테

테 보고했다는 얘기죠?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또 듣고,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白懿宗 委員; 아니, 결론은 안 났지만 우리 월드컵특위 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가를 좀 보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전부는 다 못하지만 시장님한테 보고할 사항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보고했는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정리가 돼서 저희들이 안이 성안이 되면 그때 당연히 특위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니까 정리가 아직 안 되었죠? 정리가 아직 안된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지요, 자문회의에서 한 사항을? 그러면 그 부분이 무엇 무엇인가 한 두서너 가지라도 얘기 좀 해주세요. 공개 못합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아직 결정이 시방침은.....

○白懿宗 委員; 아니 결정은 안 났지만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해야 되겠다라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경기장을 준다면 위탁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위탁을 준다면 대개 어떤 식으로 줄 것이냐 그런 것, 수익시설을 말하자면 임대를 준다면 통채로 줄 것이냐, 나누어서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 장·단점이 뭐냐 이런 사항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의견이 정리가 돼야 제가 보고를 드리지.....

○白懿宗 委員; 시장님의 방침은 보고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보고내용이 뭔지도 모르니까 답변도 잘 모르겠는데

시장님의 지침이라든가 방침이 좀 뭐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白懿宗 委員;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朱世晩; 白懿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周喆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周喆 委員;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이라든가 그 동안에 월드컵에 들떠 있는 국민, 또 관리하는 분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편차가 있더라 하는 것을 본위원이 그 동안에 느꼈거든요.

지금 말이에요. 白懿宗 同僚委員께서 질문하니까 자문위원들이 내놓은 안건이 결정은 안 되었지만 시장에게 중간보고를 했다? 시의회는 뭐니까, 시의회는 뭐예요? 그냥 나중에 결정되면 그냥 보고만 받고서 그렇다, 잘했구나, 못했구나 평가만 하는 것이 시의회인가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위원님도 참석을 시켰습니다.

○金周喆 委員; 누구를 참석시켰나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건설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저희들이 시장보고회할 때 참석을 시켜서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金周喆 委員; 그러면 그 결과가 이런 안도 나왔고 저런 안도 나왔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것이 순리 아니에요?

지금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서울시 운영이나 이런 것 보면, 물론 시의회에서 여러 사람에게 오픈을 시켜봤을 때 잡음

이 생기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려고 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천백만 시민들의 알 권리나, 또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실무자들은.

왜냐 하면, 지금 월드컵을 하나 진행하기 위해서 부지, 또 예산, 또 시민들이 그 동안에 겪어야 하는 고충, 예산 모든 것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월드컵 한번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동안에 이 서울시 주변 수도권에 경기 13번이라고 했어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수도권 10번입니다.

○金周喆 委員; 10번 치르기 위해서, 물론 외국사람들이 와서 유치하는 것까지도 좋아요. 하지만 10번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수천억을 지금 거기다가 시민의 혈세를 투하하고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세계의 최고, 또 세계에서 월등가는 월드컵경기장을 만들고 월드컵을 치르겠다고 공무원들이 보고했어요. 물론 세계에서 최고 가야지요.

그러나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경기장이 경기하기에 알맞도록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써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우리 나라가 그렇게 세계 최고의 용어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용어를 바꾸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타 경기장에 못지않는 경기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지금 아까 白懿宗委員께서 마포농수산물 유통 그 문제를 지금 공무원들의 실정에 의해서 예산이 몇 십억, 몇 백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 장소가 뭐하던 장소입니까? 소각장이예요. 그쪽이 소각

장 만든다고 한참 떠벌려놨다가 거기도 또 안 되니까 거기다가 또 서울시에서 마포에다가 유통상가를 만들게 해서 또 거기다가 월드컵을 만들고, 또 그것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14억 지원해 주고, 본위원이 그 문제를 월드컵땅 지정되면서 농수산물은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대안을 찾아봐라 하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마포구 자치구에서 못한다못한다 예산 이렇게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 지금 서울시의 재산이 그런 부분들이 마포에 땅을 빌려 주고 세를 받고 안되면 운영권을 주고 관리권을 주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지금 서울시 빚이 6조 5,000억이다 돼요.

자치구에서 과연 이 땅을 주어서 시민의 환경이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책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농수산물 유통을 지금 단장들 거기 현장에 있으니까 모르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구경갔다가 농수산물시장에 들어가 봤어요.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커피숍인가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가서 커피를 한 잔 먹으려니까 외국사람들이 와서 또 거기 가서 한번 쳐다만 보면 그게 세계 최고의, 월드컵은 세계 최고가 될는지 몰라도 주변의 그러한 시장만큼은 중국의 시장도 그런 시장 없어요.

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것을 닦든지, 뭐 하든지 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싱싱하게 보이고 이렇게 보여줘야 됴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팽개쳐 놓고, 지금 뭘 세계 최고를 찾습니까?

저기도 이왕에 지원해 주려면 예산을 좀더 주어서 제대로, 시골 지금 변두리의 매장만도 못해요. 변두리 개인의 매장만

도 못한 것을 구경왔다가, 시장이라고 써붙여 봤으면 거기를 한번 가보려면 월드컵은 세계 최고로 만들어놓고 유통하는 과정을 보면 재래시장만도 못 하고, 이것을 윗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14억을 주어서 그저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듯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마포 자치구에서 예산을 얼마 내놓고 서울시에서 얼마를 내놓아서라도 제대로 건물에, 이봐요 식당에 가서 밀창을 한번 밀어 보니까 소리가 뽁뽁 나는 창문이 있어, 다방에도 가서 보니까 그냥 차라리 커피숍이라고 써붙이지 말든지, 커피숍이라고 해서 가 보니까 무슨 뭐, 그래놓고 무슨 세계 최고의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말을 바꾸든지, 또 주변정리를 하든지, 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 문화관광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 보면 그 도시의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국이 아주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회사하고 서울시 관광국하고는 전혀 로비 관계라든가, 또 유치관계라든가, 설명회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가이드들이 우리 서울시의 고궁이 됐든, 또 볼 만한 거리가 됐든, 먹거리가 됐든 이런 데를 알선할 수 있는 장소를 제대로 알고 있는 가이드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는 서울시의 여행사들을 관광가이드를, 지금 외국사람들은 가이드를 교육을 시켜서 가이드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위법됐으면 법으로 처벌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서울시에서는, 우리 나라는 관광국에서 가이드를 누가 하고 있는지 뭣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한국의 가이드는 한국의 설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광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文化觀光局長 林載五; 金周喆委員님 지적이 저희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속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래관광객의 유치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월드컵상품과 아울러서 유치활동을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전담기관인 관광공사, 그 다음에 업체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가이드 문제는 관광안내원 자격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내원이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도 오랫동안의 경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내원들이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金周喆 委員; 다음 기회에 내가 제대로 질문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아까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업무보고 했지요?

○文化觀光局長 林載五; 그렇습니다.

○金周喆 委員; 우리 동네에 한 사람이 중국사람 가이드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 나라의 명승지든지 볼거리든지 외국사람들에게 한국상을 보여 줄 만한 교육을..... 외국에 가 보면 외국사람이 우리 나라 관광 가이드를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해 주고 역

사, 고궁,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얘기인지를 감시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중국집 하다가 대만 가서 학교 다닌 애들이 중국어를 하니까 그 사람들 오면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관광 여행사들하고 일당 받고 돌아다니는 것을 본위원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면, 교육예산이라든가 관리하는 예산이 부족하면 오픈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든 계획을 더 정밀하게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朱世晚; 金周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東奎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東奎 委員; 林東奎委員입니다.

월드컵 경기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문화관광국장님이나 또 월드컵추진단장님이나 건설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사실 IMF 이후에 어려울 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IMF를 맞으면서 그 동안에 실업문제라든지 또 기업이 도산하고 또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 왔는데 이번 월드컵 경기가 축제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대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6월 한달 동안 37만 명이 서울에 오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실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저런 것을 만드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실제 서울에 와서 볼거리가 별로 없고, 또 월드컵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올림픽 때도 외국분들이 오셔서 올림픽 경기를 한국에서 보시고 돈은 일본 가서 쓰는, 그래서 실제 외국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보고 즐기고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월드컵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흡하다, 그래서 쇼핑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구 단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외국분들이 여기 와서 실제 즐기면서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큰 대회가 있으면 치안문제는 경찰이 하겠지만, 테러나 또 여러 가지 범죄에 대비해서 경찰과 어떠한 협조를 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문제 답변해 주시지요.

○월드컵推進團長 權寧奎; 우선 林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돈을 많이 쓰고 가는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밖에서는 이런 얘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월드컵을 왜 하느냐, 서울시 팔아먹기 위해서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관도 돈 벌어야 되고 음식점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직접 나설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는 데 편리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인사동을 정비한다든가 이태원을 정비한다든가 그런 것, 그 다음에 음식점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메뉴판을 만들어 준다든가 음식점소를 소개해 준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IMF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단오축제나 이런 행사를 잘 다듬어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이 더 구체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치안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월드컵이 일반 치안문제도 있습니다만, 특히 홀리건 대책 등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국정원 주재로 홀리건안전대책통제본부가 생겨서 종합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고 서울시경에 지금 특수경비대가 생겨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홀리건이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올 때 오는 사람의 여권조회부터 시작해서 주경기장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또한 많은 배낭족들이 와서 거리에서 배회할 때 패싸움을 하는 문제까지, 며칠 전에는 서울경찰청의 경비부장이 시장께 직접 찾아와서 그 활동계획을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앞으로 이 월드컵종합계획을 보고할 때마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林東奎 委員; 월드컵대회가 IMF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기를 본위원이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월드컵추진단에서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시티투어 버스를 볼 때 외형을 좀더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성인이 1회 1,200원이라고 탑승요금

을 보고하셨는데 이 분들이 한번 타고 계속 타고 다니면서 내리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리지를 않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께서 1불 가지고 서울시 시티투어를, 이런 주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너무 요금이 싸지 않느냐, 1달러 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그 수도를 다 돌아볼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文化觀光局長 林載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형 문제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대도시에 가 보면 외국의 경우 화려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내의 교통여건상,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2층버스 같은 것도 관심들이 많고 흥미가 많은데 2층버스는 우리 주요 시티투어 코스에 육교, 보도, 곡선구간들이 많고 해서 안전문제 때문에 누차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2층버스는 현재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렇다면 다른 차종으로 해서 차에 다른 형상을 좀 만들고 어쨌든 재미있고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로는 현재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다면 외국에서 특수제작해 와서 관심을 끄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저희가 검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요금은 확실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싸입니다.

지금 요금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번 타고 내리는 경

우에는 1,200원짜리, 1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오전, 오후에 탔다 내렸다 계속 반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5,000원짜리고, 하루종일 탔다 내렸다 반복으로 하는 것이 8,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1회권의 경우에는 1,200원짜리니까 대단히 싸다고 보고, 그런데 통상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경우는 반일권, 오전, 오후권 5,000원짜리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5,000원짜리도 외국의 주요 타도시에 비해서는 싼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싸게 하는 까닭은 원래 이 시티투어사업이 관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원래 여행사에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원래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여행업자들이 계속 시도를 해봤지만 실패를 하고 전부 포기하고 나갔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인구 천만의 서울시에서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외국인들이 둘러보는 코스를 운행하는 버스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적자를 보전해서라도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선 승객들 많이 모집하고 관심을 끌고 또 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 회사가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 단계에서는 요금보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타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시티투어가 사람 확보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면 그 수준에서 적정수준의 요금을

조정해서 제대로 수지를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林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티투어를 염려해 주신 그런 것으로 알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林東奎 委員; 본위원 생각에는 서울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모든 분야에서 적자나면 서울시가 지원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다른 나라보다 제일 싸면 요금을 올려서 거기에서 현상유지가 되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서울시가 과연 적자부분만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文化觀光局長 林載五;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한 경우로는 지금 적정승객 탑승률에 도달하지 못 했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면 수요가 또 떨어지고 우리가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로는 지금 적정 탑승률까지 가는 것이 현안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충분히 널리 알려지고 나서는 요금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朱世晩; 林東奎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林載五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權寧奎 월드컵추진단장, 全希相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전세계인의 스포츠 대제전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불과 36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동안 추진하여 온 하나하나의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마무리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월드컵추진단과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는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주변지역 환경정비의 차질 없는 추진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고, 문화, 교통, 관광, 숙박 등 관련분야 준비계획의 실행화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친절, 질서, 청결의 범시민 실천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펼쳐지고 그 힘에 의해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도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54分 散會)

○出席委員

朱世晩 白懿宗 金聖泰 金周喆

朴謙洙 尹汝亨 李健相 李政恩

林東奎

○專門委員

朴勇勳

○出席公務員

文化觀光局長 林載五

월드컵推進團長 權寧奎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